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이상훈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서울특별시장		
질문제목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안 삭감 관련		

<질문내용>

질문 1.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규모'인 44조로 편성한 와중에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안은 오히려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서울시의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 예산은 1168억 6400만 원(전년도 예산액 5797억 원에서 약 20%)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액이 가장 큰 부서는 차량공해저감과와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총 약 639억 원이 삭감된 차량공해저감과의 사업을 살펴보면, 건설기계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는 등의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에서 약 38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약 557억 원이 삭감된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시 소유 건물제로에너지 전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삭감되었습니다. 녹색에너지과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과 관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각 22억 원가량 삭감되었습니다.

- 또한 자연생태과의 하천생태 복원과 녹화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 보행정책과의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등도 큰 폭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기후환경분야 예산 삭감 이외에도 기후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건물분야(서울시 에너지분야의 약 70% 차지) 재개발·재건축 등 토건개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주거공급과와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의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공공주택과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보행정책과의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개선,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등 차량통행을 줄이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사업들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질문 2. 서울시는 서울시의 기후행동계획이 동아시아 최초로 C40(도시기후 리더십그룹)의 승인을 받았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2022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보면 기후행동계획으로 제출한 사업 분야(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의 주요예산은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가 유엔기후기구에 제출한 2030 NDC 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40에 제출한 기후행동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 편성단계부터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기후예산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녹지 확충 등의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기후예산제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